

# 광주·전남 대학 추가모집에도 591명 미충원

### 전남 대학별 153.5명 '전국 최다'...전국 51곳 2000여명 달해 10곳 중 8곳 '비수도권'...추가모집 중단에 미충원 더 많을 듯

전국 51개 대학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하고도 정원 2000여명을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 대부분은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대였다. 광주와 전남지역 6개 대학은 총 591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추가모집 마감 직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기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51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008명에 달했다.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대학의 84.3%(43개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

경기 소재 대학은 8개교(15.7%)였다.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미충원이 발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사·도별로 보면 서울, 인천,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8개교, 경북 7개교, 충남 6개교, 부산·대전 각 5개교, 광주 4개교, 전북·경남·강원·충북 각 3개교, 전남 2개교, 대구·제주 각 1개교가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추정됐다.

학교당 평균 미충원 인원을 보면 전남이 1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77.7명, 광주 71.0명, 경남 50명, 강원 44.7명, 부산 40명, 충남 34.8명, 충북 34.3명, 경북 34명, 대전 19.8명, 대구 7명, 경기 5명, 제주 4명이다.

실제 미충원 대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자가 없어 추가모집 마감일인 29일 이전에 추가모집을 사실상 중단한 대학들도 있어서다.

지난달 22일부터 추가모집이 시작됐으나 수험생의 지원이 극히 저조해 공시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 대학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추가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톱3' 대학은

서울시립대(349.5대 1), 한국외대(244.6대 1), 숙명여대(214.9대 1) 등으로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었다.

서울 수도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 중에선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706대 1), 상명대 경영학부(460대 1), 건국대 부동산학과(400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서울 수도권 주요대 자연계열 학과 가운데에선 건국대 생물공학과(494대 1),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459대 1),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445대 1) 순으로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마감한 2024학년도 대입정시 모집에서 광주 대학들의 미달학과가 3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8개 대학, 60개 학과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대입은 2월 29일부로 종료됐고 2025학년도 대입이 본격 시작됐다"며 "앞으로 의대 모집정원 대학별 확정, 무전공 선발 전형 등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재수생, 반수생 규모 등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풍년들게 하소서 제 41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렸다. 고싸움놀이보존회원들이 고싸움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나고야 시민 무대 오른 근로정신대 연극, 모두를 울렸다

###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봉선화Ⅲ' 무대...미쓰비시 피해자 등 관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근로정신대를 잘 모르는 데, 연극에서 진실을 알려줘 고맙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투쟁을 다룬 연극 '봉선화Ⅲ'를 관람한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달 24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무대에서 연극 '봉선화Ⅲ'가 선보여졌다. 나고야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일본의 과오를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2003년 나고야 '봉선화 I', 지난 2022년 '봉선화 II'에 이어 세번째 무대다.

가해국의 전쟁범죄를 일본의 언어로 풀어낸 '봉선화Ⅲ' 공연장에는 고령의 소송 원고와 가족들도 함께했다.

양금덕(96) 할머니와 함께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간 정신영(94) 할머니가 생존자 중 유일하게 연극을 관람했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 공장에서 나란히 서서 모를 심듯 작업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며 작업장에서 고생했던 때가 생각났다"며 "나고야소송지원회와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들을 사는 동안 다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 출신 고 최정례(1944년 12월 7일 사망) 할머니 유족으로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원고 이경자(81)씨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의 통화에서 "연극을 보며 지진으로 돌아가신 고모(최정례)와 어린 딸을 잃고 가슴에

한을 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나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자기나 라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피해자의 아픔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금덕 할머니를 대신해 찾은 셋째 아들 박상운씨도 어머니를 모델로 한 연극이어서 감명 깊었다며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공연한 것에 무한한 긍지를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영해 전 동신대 간호학과 교수는 "우리의 아픈 얘기를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한다는 것이 생소했지만 그 감동이 두배, 세배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와 유족 등의 소감은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소송 지원회'에 전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근로자 추락사 광주 초교, 공공기관 첫 중대재해법 적용

### 노동청 "50인 미만 첫 사례"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2월 29일자 광주일보 6면)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됐다.

광주·전남지역 첫 공공기관 적용 사안이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안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강당에서 숨진 A(64)씨가 광주·전남지역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던 중 4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8일 낮 12시 50분께 결국 숨

졌다. A씨의 유족은 장기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의 발주는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는 5인이상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50인 이상 업체에서 50인 미만 업체로 확대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오늘부터 초교 늘봄학교...전남 전체·광주 32곳

전남교육청이 4일부터 425개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공간·시설을 확보했고, 학교별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과 강사 배치도 마쳤다.

이번 늘봄학교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초등 1학년은 매일 2시간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 2학년~초등 6학년은 학생 성장·발달에 맞는 다양한 늘봄 학교 프로그램과 늘봄(돌봄) 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 지원한다.

농어촌지역 1학년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됐던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가비를 도시권까지 확대해 무상 운영할 예정이어서 학부모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돼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교원들의 우려를 고려해 2학기부터는 늘봄실무직원을 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를 교원과 분리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교 32곳에서 1학기 늘봄 학교 운영을 시작해 2학기부터 전 학교로 확대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